

# 20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 Chapter

창 5:21~24, 히 11:5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오늘 배울



### 말씀

1. 에녹은 일평생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인임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의 의로운 삶을 인정하셨음을 압니다.

### 마음 열기



네 마음속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엔 네가 있다.

지난 일주일 간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생각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 1.
- 2.
- 3.



## 말씀을 이해하기

에녹은 노아의 대홍수사건 이전 사람으로서 첫 사람 아담의 7대손이자 성경의 최고령자인 므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죄악된 세상에 심판을 경고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은 한 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는 가운데 성적인 타락과 폭력으로 얼룩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은 죄와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믿음 가운데 세상의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옮기심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에녹의 의로운 삶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믿음의 삶의 대가는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홍수 이전에 에녹이 옮겨진 사건은 훗날 대환난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을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 11:5)

By faith Enoch was taken away so that he did not see death, "and was not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 for before he was take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He 11:5)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1) 유 1:14~15
- 2) 마 24:37~43
- 3) 살전 5:4~6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살후 1장 6~12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들과 이에 대비한 성도의 삶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문을 세 번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2.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안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3. 이러한 사실은 나에 대해,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각각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 1) 나에 대해
  - 2)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4.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1~12절과 비교해 보고 나의 결심을 기록해 봅시다.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구하며,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 우리들의 이야기

## 믿지 못하는 이유?

기독교에  
서울대가 있다면 우리  
교회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이거야!



아니야!  
인간은 자유 의지에  
의해서 누구든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야!



오리지날!  
옛것이 좋은거지!  
전통과 전승에  
대한 자부심!



이것 봐~  
미국에는  
우리 교파가  
더 많아. 가장  
성경적인게  
우리 교회야!



야!  
대학 교수들도  
우리 문 선생님을  
믿지 않냐!



그런데  
혹시 너희들 도에  
관심 있냐?



이런데 도대체  
뭘 믿으라고요!  
골치가 아파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교파 보고  
믿으라고 했느냐!!  
성경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

## 동행

어느 날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서 토론토행 연결편을 타려면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탑승구가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모니터를 살펴봤을 때 가장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엉뚱한 탑승구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있는 탑승구는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공항은 아주 붐벼서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 비행기를 놓치면 다음 비행기 편은 몇 시간 후에 있었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기로 한 모임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한 항공사 직원이 안전부절못하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다가와서는 “무슨 일이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렇게 막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잘됐네요. 제 옆에만 꼭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비행기 기장이거든요. 설마 그 비행기가 저 없이 떠나지는 않겠지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 조종사는 내 근심의 짐을 단번에 벗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의 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행 2:25)**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